



##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 부가가치세 신고 25일까지... 일반과세자 등 100만명에 세금비서 서비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 645만명은 오는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상반기 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6월 이러한 내용의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안내문을 일반과세자 522만명, 법인사업자 123만개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118만명에게는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제공했다고 전했다.

올해는 간단한 문답으로 신고서를 자동 완성하는 '세금비서' 서비스를 일부 일반과세자를 포함해 100만명에게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만 영위하거나 5종 서식(확정신고서, 매출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집계표·수령명세서)만 제출하는 일반과세자가 대상이다.

중소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기한 연장 및 환급금을 조기지급한다.

국세청 측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국세청, 조세소송 및 불복... 2주간 로스쿨 실무수습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오는 6일부터 19일까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학생 37명을 대상으로 조세불복 및 조세소송과 관련한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지난 2013년 9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해 7월까지 437명의 로스쿨 학생에 실무수습 과정을 제공했다.

올해 국세청에 실무수습을 신청한 곳은 25개 로스쿨 중 17개 곳이다.

실무수습에서는 국세불복(이의신청심사청구), 납세자 권리보호, 법령해석, 조세소송, 조사심의 등에 대한 강의를 듣고, 불복사건 관리, 불복사건 결정문 및 소송사건 서면 작성 등의 업무를 직접 해본다.

국세청은 강의실에서는 접할 수 없었던 현장 경험을 통해 우수한 조세전문 변호사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예비법조인들이 선택할 직장으로서 국세청이 가진 장점들을 적극 부각해 우수 자원 영입의 기회로 활용할 것이라고도 전했다.

국세청(지방청·세무서 포함)은 송무, 조사심의, 납세자 보호 등 법무 역량 강화를 위해 변호사를 채용해 운용 중이며, 지난해 말 기준 채용 변호사는 총 106명이다.

국세청은 예비 법조인들에게 다양한 국세실무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우수 법조인들을 계속적으로 영입육성하여 국세행정 각 분야에서 법적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 주택, 주택연금 가입 가능

10월부터 공시가격 12억원 이하의 주택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3일 주택연금 가입요건인 주택가격의 상한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이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가격 요건 완화를 통해 기존에 가입이 어려웠던 약 14만 가구가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해져 안정적인 노후주거 및 소득을 얻을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은 고령층의 노후주거 안정과 소득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국정과제 일환으로 추진됐다.

당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서 정한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은 공시가격 9억원으로 제한됐다.

이를 두고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해 국민의 노후 보장은 물론 최근 주택가격 급등 등으로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한 대응을 위해 주택가격 요건 확대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시행령에서는 그간 주택가격 상승추세를 반영하고 더 많은 가구의 노후주거 및 소득 안정을 돕기 위해 가격상한을 공시가격 12억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상임위 부대의견에 따라 주택연금이 주택시장 등 정책환경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도록 3년마다 주택가격요건의 적정성을 검토해 상임위에 보고할 계획이다.